

그림 형제 (1785~1863, 1786~1859)

그림 형제는 독일 출생으로 형은 야코프(Jacob Grimm), 동생은 빌헬름(Wilhelm Grimm)이다.

그림 형제는 언어학 자료로 삼기 위해 독일에서 구전되던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그림동화(1812)>를 편찬했는데, 이 책으로 인해 그림 형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유로화가 도입되기 전, 1000마르크 짜리 독일 지폐에 그림 형제의 모습이 실려 있었을 정도이다. 형은 게르만 언어학의 창시자로 언어학에서 큰 업적을 남긴 반면, 전승동화 수집에 큰 영향을 미친 <그림동화>를 만드는 데는 동생 빌헬름의 역할이 컸다.

<그림동화>의 초판은 음울하고 잔혹해서 어린이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증보판부터 내용이 순화되었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등의 현대판 동화들은 밝고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다. 그림 형제의 대표작 <럼펠스킨>, <백설공주>, <잠자는 미녀>, <라퐁젤>, <신데렐라>, <헨젤과 그레텔>, <개구리 왕자>, <브레멘 음악대> 등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백설공주 Snow White

피부가 흰 눈 같이 하얗서 백설공주라고 이름 지어진 공주님이 있었다. 왕비인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왕은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는데, 미모가 뛰어날 뿐 아니라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른다. 이 왕비에게는 진실만을 말하는 거울이 있었는데, 이 거울에게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다운지 묻고, 자신이 가장 예쁘다는 대답을 듣는 게 기쁨이었다. 어느 날 이 요술거울이 왕비가 아닌 백설공주가 가장 예쁘다고 말하자 왕비는 분노하는데...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도 큰 인기를 끈 이 작품은, 동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영화와 연극, TV 방송물로도 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난쟁이와 구두 직공 The Elves and the Shoemaker

작은 마을에 구두 직공 부부가 살았다. 이 부부는 열심히 일했지만 갈수록 가난해졌다. 근처에 큰 시장이 생겨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구두 가게에만 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단 한 켤레의 구두를 만들 수 있는 가족만 남은 날, 부부는 불안한 마음을 서로 위로하지만 쉽사리 잠들지 못한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작업대 위에는 멋진 새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는데...

1812년 그림 동화집에 실린 작품으로, 오늘날까지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백설공주

[제1장] 사악한 왕비와 요술거울

p. 12-13 옛날 옛적에 왕과 왕비에게 아기 공주가 있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녀는 예쁜 검은 머리와 분홍빛 뺨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환한 흰색이었다. 그것은 갓 내린 눈처럼 보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백설공주라 불렀다. 하지만 그 후 왕비가 죽고 왕은 재혼을 했다. 새 왕비는 매우 예뻐서.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 매일, 그녀는 요술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나서 요술거울에게 말했다.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녀가 물었다.

p. 14-15 “왕비님이십니다.” 거울이 대답했다. “왕비님, 나의 왕비님은 세상에서 가장 예쁘십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인가! 왕비는 요술거울을 매우 좋아했다. 그것은 항상 진실을 말했다. 10년 이 지나고 백설공주는 훨씬 더 예뻐졌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가 요술거울로 다가갔다.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녀가 물었다. “나의 왕비님, 왕비님께서도 매우 예쁘십니다.” 거울이 말했다. “하지만 백설공주가 훨씬 더 예쁩니다.” “흥!” 왕비가 소리쳤다. 그녀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다.

p. 16-17 곧 왕비는 백설공주가 싫어졌다. 그래서 그녀는 사악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하인을 방으로 불렀다. “백설공주는 죽어야 해.”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그 애를 숲 속으로 데려가거라.” 그녀가 명령했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을 여기로 가져와. 그제 증거다. 이제 가져와.” 하인은 백설공주를 숲 속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죽일 수 없었다. 그는 백설공주에게 말했다. “전 공주님을 여기에 두고 가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안전한 곳으로 뛰어가세요. 왕비님이 절대로 공주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달아나서 돼지를 죽였다. 그런 후에 그는 그것의 심장을 왕비에게 주었다. 그녀는 미소 짓고 기뻐하며 웃었다. “네가 해냈구나.” 그녀가 말했다.

p. 18-19 가엾은 백설공주는 숲 속에서 길을 잃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오두막집을 발견했다. 문을 열고 둘러보았다. 안에는 작은 탁자가 있었다. 그 위에 일곱 개의 음식이 담긴 접시가 있었다. 각각의 접시 옆에는 주스 한 잔이 있었다. 백설공주는 매우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다. 그래서 그녀는 각각의 접시에 있는 음식을 조금씩 먹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유리잔에 있는 주스를 조금씩 마셨다. 곧 그녀는 졸렸다. 다행스럽게도 벽에 붙어 있는 일곱 개의 작은 침대가 있었다. 모두 깨끗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일곱 번째 침대가 가장 편했다. 그녀는 거기에 누워서 금방 잠이 들었다.

p. 20-21 밤 사이에 그 오두막의 주인들이 집에 왔다. 그들은 일곱 명의 작은 난쟁이었다. 처음에 그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들은 탁자 위가 엉망인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난쟁이는 작은 백설공주가 자신의 침대에 있는 것을 보았다. “정말 아름다운 소녀구나.”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밤새도록 거기에서 자도록 두었다. 다음날 아침에 백설공주는 잠에서 깨었다. 작은 난쟁이들 모두가 그녀를 둘러싸고 서 있었다. “아, 맏소새!” 그녀가 외쳤다. 그녀는 매우 놀랐다.

하지만 난쟁이들은 그녀에게 친절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찍 여길 나가요.” 한 난쟁이가 말했다. “온종일 우리는 산에서 금을 찾지요. 그러니 당신은 우리 오두막에서 머물러도 돼요.” “휴! 고마워요.” 백설공주가 말했다. “이제 난 안전한 집이 생겼네요.”

p. 22-23 한편, 거만한 왕비는 여전히 요술거울에게 말했다.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녀가 물었다. “나의 왕비님.” 요술거울이 말했다. “보이는 곳에서는 왕비님이 가장 예쁩니다. 하지만...” “하지만?” 왕비가 말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오늘 밤 난쟁이의 오두막집에 한 소녀가 살고 있습니다.” 거울이 말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작은 백설공주보다 예쁘지 않습니다.” “흥.” 왕비가 외쳤다.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 있다고? 어떻게 그게 사실일 수 있지?” 그녀는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녀의 얼굴은 사과 같이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사악한 계획을 세웠다.

[제 2 장] 홀로 오두막에

p. 26-27 그 다음날, 왕비는 다른 옷을 입었다. 그녀는 높은 드레스 장수 같이 보였다. 그것은 그녀 계획의 일부였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숲을 둘러보았다. “아하.” 왕비가 말했다. “그 오두막집이 있네.” 그녀는 안에 있는 백설공주를 보았다. “드레스요, 드레스.” 왕비가 외쳤다. 그녀는 심지어 자기 목소리도 바꿨다. “예쁜 드레스를 팔아요, 와서 보세요.” 물론, 백설공주는 예쁜 드레스를 매우 좋아했다. 그래서 그녀는 왕비를 안으로 들였다. “어떤 종류의 드레스를 가지고 있죠?” 그녀는 물었다.

p. 27-28 “이걸 입어 봐요.” 왕비가 말했다. “아, 너무 짝 꺼요.” 백설공주가 말했다. “여기.” 왕비가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요.... 보이죠? 맞잖아요.”

하지만 그 옷은 백설공주의 목 주위를 너무 짝 조였다. “숨을 쉴 수 없어요.” 백설공주가 외쳤다. 그녀는 곧 창백해졌다. 그리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일이 계획대로 됐어.” 왕비는 생각했다. “이제 백설공주는 죽었어.” 그리고 나서 그녀는 성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에 난쟁이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재빨리 백설공주의 드레스 목 부분을 잘라 냈다. “휴!” 그녀가 외쳤다. “숨 쉴 수 있어.” “백설공주님.” 한 난쟁이가 말했다. “공주님은 하루 종일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 제발 조심하세요.”

p. 30-31 성에서 왕비는 또다시 요술거울에게로 갔다. “거울아, 거울아.” 그녀가 말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나의 왕비님.” 요술거울이 말했다. “그 누구도 작은 백설공주보다 예쁘지 않습니다.” “흥. 백설공주가 죽지 않았구나.” 왕비가 외쳤다. “난 여전히 그녀를 죽여야 해.”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사악한 계획을 세웠다. 먼저, 그녀는 빛을 꺼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것을 공중에서 휘두르며 마법을 부렸다. 획. 순식간에 그 빛에 독이 묻었다. 다음날 왕비는 오두막으로 다시 갔다. 다시 한번, 그녀는 노파의 옷을 입었다. “예쁜 물건 있습니다. 예쁜 물건.” 그녀가 외쳤다. “온갖 종류의 예쁜 물건을 팔아요.”

p. 32-33 하지만 이번에는 백설공주가 왕비를 안에 들어오게 하지 않았다. “여기.” 왕비가 말했다. “아가씨의 예쁜 머리카락을 그냥 빗게만 해주구려.” “좋아요.” 백설공주가 승낙했다. 그래서 왕비

는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었다. 그리고 그녀는 백설공주의 머리를 빗었다. 짧은 시간이 흐른 후, 백설공주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난쟁이들이 집에 돌아왔다. “아, 안 돼.” 한 난쟁이가 소리쳤다. “백설공주님을 봐.” 그는 재빨리 그녀의 머리에서 빗을 빼냈다. 천천히 백설공주가 일어났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가 물었다. “나쁜 사람이 여기에 또 왔었어요.” 그 난쟁이가 말했다. “그리고 그 빗에는 독이 묻어 있었어요. 공주님은 절대로 이 집에 다른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그들과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p. 34-35 다시 한번 왕비는 곧장 요술거울 앞으로 갔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녀가 물었다. 또다시, 대답은 같았다. “나의 왕비님.” 거울이 말했다. “그 누구도 작은 백설공주보다 예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그녀는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졌다. “나 좀 봐!” 그녀가 외쳤다. “사과처럼 빨갛잖아....”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잠시 동안 생각했다. “잠깐... 사과라.” 그녀가 말했다. “히히히, 이제 새로운 계획이 생겼어.” 우선 그녀는 사과를 하나 손에 넣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것을 공중에서 휘둘렀다. 획, 순식간에 사과 반쪽에 독이 묻었다.

p. 36-37 세 번째로 왕비는 그 오두막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노파의 옷을 입고 목소리를 바꿨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가세요.” 백설공주가 외쳤다. “난 어떤 사람도 안에 들일 수 없어요.” “하지만 난 맛있는 사과가 있다오.” 왕비가 말했다. “이거 한 개만 가져가요. 나누어 먹을 수도 있고.” 그녀는 그 사과를 두 조각으로 잘랐다. 그리고 나서 한 조각을 기분 좋게 먹었다. “음, 정말 달콤해. 한 조각먹어 봐요.” 그녀가 말했다. 백설공주는 그렇게 맛있는 것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녀는 한 입 베어 물었고... 쿵!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 숨을 쉬지 않았다. “죽었다. 죽었어.” 여왕은 사악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이제 난쟁이들은 널 도와줄 수 없어.”

[제 3 장] 예쁜 유리상자 안에서

p. 40-41 왕비는 성으로 사들려 돌아왔다. “거울아, 거울아!” 그녀가 말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나의 왕비님.” 요술거울이 대답했다. “당신이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예쁘십니다.” 왕비는 미소를 짓더니 기뻐하며 웃었다. “정말 행복한 날이야!” 그녀가 외쳤다. 그날 밤, 난쟁이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봐.” 한 난쟁이가 외쳤다. “백설공주님이 또 바닥에 쓰러져 있어.” “백설공주님! 백설공주님!” 그들은 모두 소리쳤다. “깨어나세요.” 하지만 난쟁이들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백설공주는 정말로 죽었다. 사흘 동안 그들은 울고 또 울었다.

p. 42-43 “불쌍한 백설공주님은 매우 상냥하고 아름다웠어.” 한 난쟁이가 말했다. “우리는 공주님을 그냥 땅에 묻을 수 없어.” 그래서 난쟁이들은 예쁜 유리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측면마다 큰 황금색 글자들을 덧붙였다. 이 글자들은 그녀의 이름을 쓴 것이었다. ‘백 설 공 주.’ “우리 관을 산 꼭대기로 가져가자.” 한 난쟁이가 말했다. “어차피 우리는 거기 가서 매일 금을 찾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백설공주님 가까이에 있을 수 있어.” 난쟁이들은 함께 관을 산 위로 운반했다. 백설공주는 며칠 동안 유리관 속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계속 빨갛고, 뺨은 분홍빛을 유지했다. 그녀는 살아 있지만 잠든 것 같이 보였다.

p. 44-45 그러던 어느 날 한 왕자가 산 위로 말을 타고 왔다. 그는 백설공주를 보았고 심장이 춤을 추듯 뛰었다. 첫 눈에 반한 사랑이었다. “제발,” 그는 난쟁이들에게 말했다. “내 궁전의 모든 사람이 이 사랑스러운 여인을 봐야 합니다. 내가 그녀를 거기로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난쟁이들은 왕자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승낙했다. 그들은 관 주위에 모여서 관을 들었다. 그때 갑자기 한 난쟁이가 넘어졌다. 관이 앞으로 떨어졌고..., 팡! 작은 사과 조각 하나가 백설공주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그리고 그녀는 깨어났다.

p. 46-47 “여기가 어디죠?” 그녀가 물었다. “당신은 나와 여기에 있어요.” 왕자가 말했다. “나는 왕자이고 당신을 사랑해요. 내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백설공주는 기뻐고 그러겠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그 커플은 서둘러 왕자의 궁전으로 갔다. 그리고 행복한 난쟁이들은 그들과 함께 갔다. 왕자의 가족은 성대한 왕실 결혼식을 계획했다. 백설공주가 그 식의 신부였고, 그녀는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멋진 결혼식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먹고 춤추고 웃었다. 사악한 왕비조차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 궁전에 갔다. 그녀는 멀리서 백설공주를 보았다. 백설공주는 매우 아름다워 보였고 그녀는 그것이 몹시 싫었다. 그녀는 성으로 급히 돌아왔다.

p. 48-49 “거울아, 거울아.” 그녀가 말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나의 왕비님.” 요술거울이 대답했다. “보이는 곳에서는 왕비님이 가장 예쁩니다. 하지만 이제 궁전에 젊은 왕비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 밤 모든 이들 중에 가장 예쁩니다.” “흥.” 왕비가 외쳤다. “죽어, 죽어, 죽어 버려!” 그녀는 외치고, 외치고 또 외쳤다. 그녀는 팔을 흔들며 사악한 마법을 썼다. 곧 성은 흔들리고 흔들리고 또 흔들렸다. 왕비는 넘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곧 그녀는 죽었다. 하지만 결혼식 후에 백설공주는 평화와 기쁨만 느꼈다. 그녀는 오랫동안 왕자와 행복하게 살았다.

난쟁이와 구두 직공

[제1장] 작은 마을의 조그만 가게

p. 56-57 아주 작은 마을에 바쁜 구두 직공이 있었다. 하루 종일 그는 구두와 부츠를 만들었다. 그는 망치와 가위 같은 간단한 연장만을 사용했다. 구두 직공의 아내도 그의 주변에서 바닥을 쓸었다. 그들은 작은 가게에서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행복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일에 자부심이 있었다. “우리 구두는 가격이 싸지.” 구두 직공이 말했다. “하지만 질은 좋잖소. 우리는 항상 적당한 가격에 좋은 구두를 팔아야 해요.” 그의 아내는 맛장구 쳤다.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도 구두가 필요하니까요.” 그녀가 말했다.

p. 58-59 몇 년이 지나고 그 부부는 더 가난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작은 가게를 잊어 버렸다. 근처에 새로 생긴 큰 마을이 있었고, 거기에는 큰 시장이 있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구두를 샀다. 어느 날 아내는 가게를 둘러보았다. “우리에게 돈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구두를 딱 한 켤레 더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가죽만 있어요.” “난 내일 구두를 만들 거요, 그 구두는 아주 멋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아내가 물었다. “일이 더

잘 풀리겠지요.” 구두 직공이 말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니깐요.” 하지만 구두 직공과 아내는 둘 다 걱정이 되었다. 그날 밤 그들은 잠을 잘 자지 못했다.

p. 60-61 그 다음날 아침 구두 직공은 일찍 일어났다. 그는 작업대로 갔다가 매우 놀랐다. 가족이 모두 없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완벽한 남성용 구두 한 켤레가 있었다. “봐요!” 그가 외쳤다. “이 구두는 아름답구려. 누가 만들었을까요? 마법이에요!” 아내도 놀랐다. 갑자기 누가 가게 문을 두드렸다. 아내가 문을 열자 키 큰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양복을 입었고 꽤 부유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새 구두 한 켤레가 필요한데요. 오, 저 훌륭한 구두 좀 봐.”

p. 62-63 “이것은 멋진 구두군요.” 남자가 말했다. “그러니 내가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하죠.” 그는 구두 직공에게 동전 한 자루를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구두를 가지고 가게를 떠났다. 아내는 자루에서 동전들을 꺼냈다. “이 돈 좀 봐요.” 그녀가 말했다. “우린 이제 음식을 살 수 있어요.” 부부는 곧장 시장으로 갔다. 그들은 많은 음식을 샀지만 아직도 돈이 좀 남았다. “봐요.” 구두 직공이 말했다. “난 두 켤레의 구두를 만들 만큼의 가족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을의 작은 시장에서 가족을 좀 샀다. “난 내일 구두를 만들 거요.” 그가 말했다. “오늘밤엔 그곳이 쉬면서 저녁을 푸짐하게 먹읍시다.”

p. 64-65 다음 날 아침에 교회종이 울렸다. 다시 한번 구두 직공은 일어나서 작업대로 갔다. 그리고 또다시 가족이 없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켤레의 여성용 구두가 있었다. “와서 이 구두들을 봐요.”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그것들은 정말 훌륭해요. 누가 만든 걸까?” “이건... 이건... 정말 이상해요.” 아내가 말했다.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렸다. 아내는 문을 열었고 두 명의 숙녀가 안으로 들어왔다. “정말 아름다운 구두네요!”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살게요.” 그들은 탁자 위에 금화 한 더미를 놓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구두를 가지고 가게를 떠났다. “정말 운 좋은 날이네요!” 아내가 말했다. “이진 많은 돈이에요. 우린 더 많은 구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마을의 작은 시장으로 갔다. 구두 직공은 큰 가족 조각을 샀다.

p. 66-67 다음 날 아침, 또다시 가족이 없어졌다. 탁자에는 네 켤레의 훌륭한 구두가 있었다. “봐요.” 구두 직공이 말했다. “여기에 네 켤레의 구두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매우 훌륭해요. 정말 이상하구려.” “네, 그러네요.” 아내가 말했다. “정말 이상해요.” 또 다시 문 앞에 손님들이 있었다. 날마다 부부는 점점 더 많은 구두를 팔았다. 그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었다. 또한 그들은 곧 유명해졌다. 새로 생긴 큰 마을 사람들도 그 가게에 왔다.

p. 68-69 그러던 어느날 밤, 구두 직공은 가위를 내려놓았다. “어보.”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매일 밤, 난 이 가족을 잘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난 멋진 구두를 얻었어요. 물론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지. 아마 둘 또는 세 명일지도 몰라요. 그들은 내 망치와 못을 사용해요. 그들은 내 접착제도 사용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일을 매우 잘해.” “당신 말이 맞아요.” 아내가 말했다. “하룻밤을 자지 말고 있어 봐요. 당신의 작업실을 지켜 봐요. 그럼 우린 그 사람들을 확실히 볼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구두 직공이 말했다. “오늘밤 지켜봅시다.”

[제 2 장] 멋진 선물을 만들자

p. 72-73 그날 밤, 그들은 커튼 뒤에 숨었다.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자정이었는데 더 큰 소리가 났다. “저거 들려요?” 아내가 속삭였다. “작은 발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곧 두 명의 꼬마요정이 작업실에 들어왔다. “봐요.” 아내가 말했다. “꼬마요정들이예요. 하지만 그들은 매우 가난해 보여요. 바지는 낡고 찢어졌어요. 셔츠도 구멍투성이예요. 발에 양말도 신발도 신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꼬마요정들은 매우 빨리 일했다. 그들은 분주히 일하는 벌들 같았다.

p. 74-75 “이 친절한 꼬마요정들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구려.” 구두 직공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정말 많이 도와줘요. 난 그들의 도움에 정말 감사한데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 옷을 만들어야 해요. 난 부츠와 허리띠를 만들 수 있어요. 당신은 셔츠와 바지를 만들 수 있을 거요.” “그래요.” 아내가 말했다. “그리고 난 그들에게 양말도 만들어 줄 거예요. 난 모자와 재킷도 만들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새로 생긴 마을에 있는 큰 시장에 갔다. 그들은 꼬마요정들의 옷을 만들기 위해 좋은 실크와 양모를 샀다. 그리고 그들은 꼬마요정들의 허리띠와 부츠를 만들기 위해 가죽을 샀다. 그리고 나서 부부는 만족스럽게 집으로 돌아왔다.

p. 76-77 “이제, 이 좋은 재료로 고급스러운 옷을 만듭시다.” 구두 직공이 말했다. “물론이예요.” 아내가 말했다. “시작해요.” 곧 그녀는 실크로 두 벌의 작은 셔츠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양모를 꺼냈다. 우선 그녀는 바지와 재킷을 만들었다. 다음에 모자와 양말을 만들었다. 모든 옷이 매우 부드러웠다. 그 사이, 구두 직공은 작업대에서 열심히 일했다. 우선 그는 가죽으로 두 개의 가는 허리띠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주 작은 선홍색 부츠 두 켤레를 만들었다. “꼬마요정들이 매우 기뻐할 거예요.” 아내가 말했다. 그녀는 허리띠와 부츠 바로 옆에 옷을 전부 두었다.

p. 78-79 그리고 다시 한 번 부부는 커튼 뒤에 숨었다. 그들은 거기에 조용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마침내, 자정이었다. “꼬마요정들 소리가 들려요.” 아내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작업실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 후, 갑자기 두 명의 꼬마요정이 작업실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작업대 위로 뛰어올라 춤을 추었다. 그들은 미소 짓고 또 웃었다. 그들은 정말 귀여웠다! “봐, 봐.” 그들이 소리쳤다. “실크 셔츠야. 양모 바지에 재킷이야.”

그들은 짱짱 춤을 추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원을 그리며 춤을 추었다. 그들은 재빨리 모든 옷을 입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악수를 하고 공중으로 머리를 쳐들었다.

p. 80-81 “우리는 머리에 멋진 모자를 쓰고 발에는 좋은 부츠를 신었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진정한 신사라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단정하고 깔끔해 보일 거라네.” 그들은 즐겁게 노래 불렀다. 그들은 작업대에서 뛰어내려 문 밖으로 춤추며 나갔다. 그때부터 구두 직공과 아내는 그 꼬마요정들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부부는 여전히 그들의 가게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많은 구두를 팔았고,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않았다.